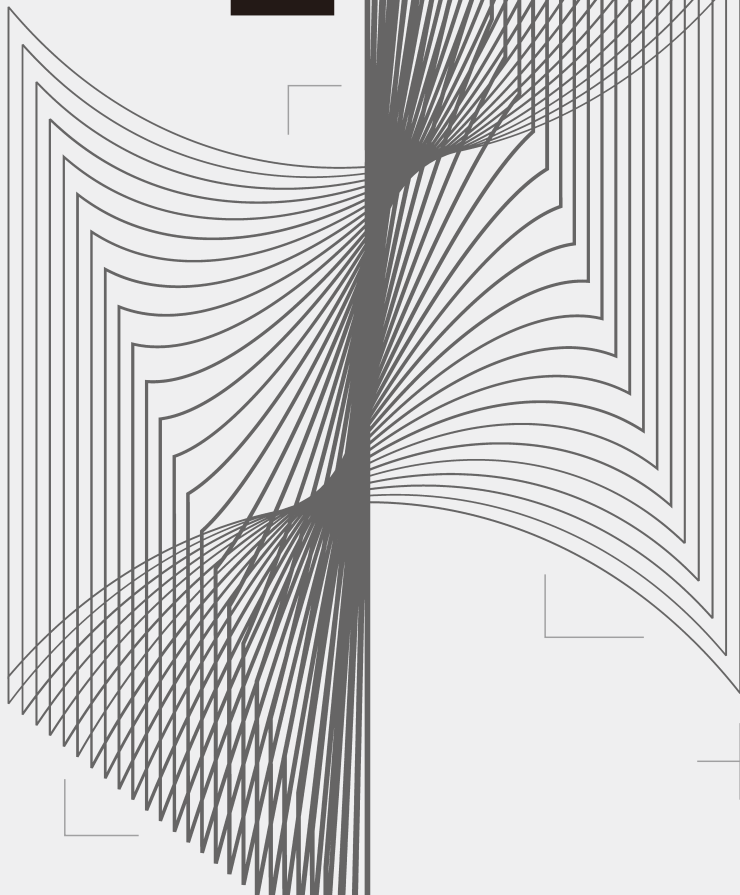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leeh9928@naver.com

도가 인성론의 존재론적 구조와 심성론의 필연성

노단경(북경대학교 · 중국철학 · 박사)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179>

I. 서론

■ 도가의 인성과 심성에 관한 논의는 동양 사상사 전반에서 제한된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유가의 도덕철학적 틀 속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며, 동시에 도가 내부에서도 인성과 심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인성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려는 철학의 보편적 주제이다. 도가 사상 역시 인간을 도(道)와 자연(自然)의 관계 속에서 사유하며, 그 본질을 외적 규범이 아닌 존재론적 질서 속에서 탐색하였다. 따라서 도가의 인성론을 논의하는 일은 유가적 개념 체계를 도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노장 사유 내에 내재한 인간론적 통찰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축의 시대 이후 본성 문제가 철학적 주제로 부상하면서, 전국시대 중기에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정립되었다. 이로써 본성을 규정하고 도덕적 근거를 확립하려는 유가적 인성론이 사상적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인

간을 자연적 존재로 회복하려는 도가의 자연인성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대체로 수용되는 해석으로(임채우, 1997; 정개(鄭開), 2002), 도가 사상의 인성 이해를 설명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도가 인성론은 본래의 자연적 성질을 억제하지 않고, 인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때 노자는 인간 본성을 자연 그 자체로서의 자발적 생명성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도가에서 인간 본성을 자연으로 환원했다고 할 때, 이는 인간을 도덕적 규정성으로부터 비워내 자연적 생명 원리로 되돌리는 사상적 전환을 의미한다.

생명원리는 생성의 질서를 드러내는 개념인 반면 인성은 도의 질서를 내면화한 심성의 작용으로서 자발적 자연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도가 인성론은 생명 원리의 존재론적 차원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의 내적 실천과 자각의 차원으로 심화한 독자적 사유로 평가할 수 있다.

도가의 경우 성(性)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성 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현대 연구에서는 『도덕경』과 『장자』의 문맥 속에서 ‘덕(德)’, ‘박(朴)’, ‘소(素)’, ‘진(眞)’ 등의 개념이 인성 개념에 상응하는 사유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철학계에서는 정개(鄭開)가 대표적이다. 정개는 「도가 심성론연구(道家心性論研究)」와 「도가인성론 고찰(道家人性論闡微)」 등 일련의 저술에서, 노자와 장자의 사유를 분석하며 자연 본성에서 무위 심성으로 이어지는 심성 개념의 필연적 전개를 논증하였

다. 그는 도가 사유에서 성(性)이 비록 문자적으로 결여되어 있더라도, ‘덕’, ‘진’ 등의 개념이 본래적 생명성과 마음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개에 따르면 도가 심성은 무위의 정신적 경지를 통해 인간 본성을 복원하는 형이상적 인식과 존재의 근거로 자리한다. 이는 도가 심성론의 존재론적 필연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된다.

한국 학계에서도 도가의 인성과 심성에 대한 접근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임채우(1997)는 「노자 심성론에 있어서 앎과 욕망의 구조와 문제」에서 유가의 윤리적 심성론과 대비되는 노자의 무지와 무욕 개념을 분석하며, 도가 심성의 핵심을 비도덕적 초도덕성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인성이 선악의 가치 판단을 초월한 자연적 심성임을 강조한 연구다.

또한 윤지원(2012)은 「《장자》에 나타난 마음(心)과 몸(身)에 대한 고찰」에서 심과 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자의 사유를 재해석하며, 도가 심성론을 심신일체의 존재론적 사유로 규정하였다. 그는 심이 신을 주재하지 않고 신 또한 심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장자의 입장을 통해, 심과 신이 함께 도의 자연적 리듬 속에서 생동하는 존재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도가의 인성과 심성을 도덕적 규범이나 형이상학적 주체 개념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존재적 평형과 자발성의 원리로 이해하여 심성의 차원에서 인간 본성의 내적 자유와 존재 근거를 탐구하는 철학으로 재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가의 인성을 선악을

초월한 자연인성으로 규정하고, 심성론의 존재론적 필연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도가 인성론 형성의 사회적·사상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어 노자와 장자 사상에 내재된 인성의 구조와 그 심성적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도가 심성 개념이 어떻게 무위자연의 존재론적 논리와 연결되며, 인간 존재의 본질로서 필연적 위치를 가지는지를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도가 인성론을 작위 이전의 자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파악하되, 이를 가치중립적인 생명론이 아니라 심성이 형이상학적 심화 과정으로 귀결되는 절대적 자연성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사회적 배경과 도가적 자연관의 형성

■ 철학 사상의 전개는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춘추전국시대는 물질적 욕망과 권력 추구가 극대화되면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지속된 시기였다. 이러한 혼란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촉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질서의 원리와 정치적 방향,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사유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유의 전환은 은주 시대의 천(天)과 명

* 鄭開, 莊子哲學研究, 廣西 人民出版社, 2016, 176쪽. “인성은 철학적 사고의 기본 전제 중 하나이다. … 철학적 사고는 종종 인성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어떤 것들이 그 본질에 부합하며 본질이 요구하는 것인지 말할 수 있다. 정치든 윤리학이든 일반적으로 인간성에 반하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설령 반하는 주장일지라도 인간성 개념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命) 중심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초점을 외적·초월적 질서에서 심(心)·성(性)·정(情)·기(氣) 등 정신적·심적 영역인 내적 원리로 이동시켰다.

주대에 들어 천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원리로 재해석되었고 천명은 정치적·윤리적 정당화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하늘은 사스럽지 않고 공정하여, 그저 덕을 갖춘 자를 돕는다”는 관념은 천이 덕을 지닌 인간과 교응한다는 사고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이 스스로 덕을 닦고, 윤리적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동주 이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천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었다. “끝없이 넓은 하늘은 그 덕을 비추지 않는다. 죽음과 기근을 내리고, 사방의 제후들을 해칠 뿐이다”와 같은 구절은 천이 도덕적 보상의 근거로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봉건제가 군현제로 대체되는 전환기 속에서 인간은 천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는 주체적 자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자각은 인간 스스로를 우주의 일부이자 사유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각 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식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이상적 사회 질서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사유의 복합화 속에서 노자는 사관적 위치에서 주대 정치 이념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사회의 병폐를 윤리적 처방이 아닌 ‘도’라는 근원 원리를 통해 사유했다. 그는 도물(道

* 『左傳·僖公五年』“皇天無親，惟德是輔。”

** 『詩經·小雅·雨無正』“浩浩昊天，不駿其德。降喪飢饉，斬伐四國。”

物)·유무(有無)·명실(名實)의 관계를 통해, 형색(形色)과 명칭 등 인위적 가치 체계를 반성하고, 모든 존재를 도의 자연적 질서 속에서 채워치시키려 했다.

도가 사상에서 자연 개념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자연은 물질적 환경이 아니라 도와 동일한 차원의 존재 원리, 즉 만물을 생성·운행하게 하는 자생적 법칙을 의미한다. 도가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서 외적 목적이나 인위적 조작 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 역시 만물의 일부로서 자연 법칙에 속하며 인성 또한 자연과 동일한 근원을 지닌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본성을 선악의 가치로 규정하기보다, 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자생적 ‘자연 인성’으로 파악하게 한다. 비록 도가 문헌에서 ‘인성’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도(道)·덕(德)·정(情)·기(氣) 등의 개념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일정한 관점이 암묵적으로 드러난다.

자연 개념이 철학적 개념으로 등장한 최초의 문헌은 『도덕경』 이후이지만, 자연에 대한 관심은 도가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환경으로서의 의미에 머물렀지만 유가 역시 천지 만물의 존재와 그 질서를 인정하였다.

공자는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연을 윤리적 관계 속에 위치시켰으며 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위계 속에서 파악했다. 그의 정명(正名)과 오륜(五倫) 사상은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짓고, 도덕적 교화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사고에서 자연은 인간의 실천을 위한 배경으로 전제되며 인간 중심적 질서의 일부로 편입된다.

반면 도가는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도가의 자연은 인간의 작위를 제거한 결과 상태가 아니라, 행위가 인위적 목적과 규범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존재의 작동 양식이다. 인간의 본성 또한 자연의 한 발현이며, 그 ‘자연성’을 따르는 것이 덕의 구현이라 본다. 따라서 유가의 자연관이 도덕적 교화의 수단으로서 자연을 다루는 데 반해, 도가는 존재론적 동일성과 자발적 조화의 원리에 근거한다.

도가의 인성론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맹자의 논적이었던 고자(告子)의 인성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자는 “성은 마치 급류와 같다. 동쪽으로 터주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로 흐른다”라고 하여,* 인성이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중립적 상태, ‘성무선무악설’을 주장했다. 그는 “생지위성(生之謂性)”이라 하여, 타고난 본능적 욕망인 식(食)과 색(色)을 인간 본성의 근원으로 보았고 그 자체에 선악의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성은 도덕적 규범 이전의 자연 상태이며, 인간은 후천적 습관과 의지에 따라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맹자의 성선 개념과 대립하면서도, 도가의 자연인성론과 일정한 접점을 가진다. 고자의 입장은 인간 본성을 도덕적 규정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본연성’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도가의 무위자연 사상과 사유적 지평을 공유한다. 춘추전국시대의 철학적 전환은 ‘천(天)’ 중심의 질서에서 ‘인(人)’ 중심의 자

* 『孟子·告子上』“性猶湍水也。決諸東方則東流，決諸西方則西流。”

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며, 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인간 본성을 도덕적 규범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연의 자생적 원리로 파악하는 사상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III. 노장 인성론

■ 전국시대 중기에 사회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촉진되었다. 노자가 인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도덕경』에서 ‘소박(素朴)’, ‘적자(赤子)’, ‘무명지박(無名之樸)’ 등의 개념을 통해 그 인성관을 유추할 수 있다.

본고는 『도덕경』에 나타난 인성론의 형성과 이것이 『장자』에서 심화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도가 인성 이론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노장의 자연인성론에 내재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주체적인 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1. 노자 인성론: 자연성의 회복 의지

춘추전국시대의 전란은 인명 손실과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인간은 생존 본능에 매몰된 채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감각이 왜곡되는 사회적 허무주의에 빠졌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들이) 풍요로운 삶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노자는 이러한 사회 현실을 단순한 사회적 병폐가 아닌 인간이 도(道)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 본성으로부터의 이탈로 해석한다. 즉, 인간이 자연성을 상실하면 사회 질서 또한 파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 인성론은 문명과 기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침에 대한 비판이며, 인간이 자발적 의지로 자연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요청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도덕경』에서 도는 중심 개념으로 만물의 생성 원리이자 근원적 본체이다. 노자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自然而然)’을 뜻한다. 도와 자연은 동일한 존재론적 속성을 공유하며, 도의 본질이 무위에 있고, 무위의 내적 원리가 곧 자연이다. 노자가 말한 “도법자연”은 도가 외재적 자연을 따라야 한다는 규범이 아니라, 도 자체가 작위 없이 스스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 역시 자연의 성질을 닮아 무위적 존재 방식을 지녀야 한다.

도가 자연 개념은 ‘스스로 옳음(自是)’, ‘스스로 마땅함(自

* 『道徳經』 제75장 “民之輕死，以其求生之厚”

** 『道徳經』 제25장 “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宜), ‘스스로 이룸(自成)’, ‘본래 그러함(本來如此)’ 등의 함의를 지닌다. 정개는 자연을 모든 사물과 속성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며, 본래적 고유 함의로서 원칙과 본원으로 설명한다. 이로써 자연이 인위적 간섭 없이 작용하는 자율적 체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가의 자연은 외부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실체로 무위의 성질을 내포한다.

본고는 노자의 무위를 ‘행하지 않음(不爲)’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인간이 판단과 행위의 주체로서 자연의 질서에 자신을 맡기는 적극적 실천의 의지로 해석한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한다. 아무리 큰 회오리바람이라도 아침나절 내내 불지 못하며, 소나기도 온종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인데, 천지의 작용조차 오래가지 못하니, 사람의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무위는 인위적 작위를 배제함으로써 본성을 훼손하지 않는 태도이다. 즉, ‘행하지 않음’이 아니라 ‘본성에 맡겨 행함’이다. 반면 유위는 인위적 판단이 개입된 작위로, 본질을 왜곡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한다. 따라서 노자는 무위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자연적 본성으로 회귀해야 함을 역설한다.

* 鄭開, 「自然與Physis: 比較哲學的視野」, 『人文雜誌』, 08 (2019), 2~8쪽.

** 『道德經』 제23장 “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天地. 天地尚不能久, 而況於人乎.”

1) 노자 인성론의 특징: 초월성과 비규정성

유가가 인성과 물성을 구분하고 인성을 인간 고유의 도덕적 속성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도가는 인간을 만물의 일부로 보며 자연스러운 인간다움을 강조한다. 그 인성은 본래적 자연성으로 인위적 구분을 배제해야 드러나는 인간다움이다.

몽배원(蒙培元)은 노자의 자연 인성 특징으로 초월성 및 절대성과 원시성 및 소박성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전자는 자연 인성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형이상학적 개념이며, 모든 사회적 도덕이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자연적 무위 실천은 선악을 초월하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한다.* 서복관(徐復觀) 역시 노자의 우주론이 곧 인성론이라 주장하며, 이는 노자가 인간 본질을 우주의 근원, 도에 두어 인간이 그것에 일치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초월적 접근은 상대적 가치 판단을 넘어 인간 본성을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이다.

노자의 도는 ‘무(無)’를 통해 해명된다. 무는 감각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이는 무위, 무명 등으로 표현되며, 장대년(張岱年)에 따르면 개체물 내부의 공허한 부분, 개체물이 생성되기 이전 및 소멸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일체의 개체물을 초월한 최고의 본원을 의미한다.***

* 蒙培元, 中國心性論, 臺灣 學生書局, 1990, 48쪽.

** 徐復觀, 中國人性論史·先秦篇, 北京 九州出版社, 2014, 61쪽, 67쪽.

*** 張岱年, 中國古典概念範疇要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73~74쪽.

만물이 자라나 번성하도록 하되, (만물을) 만들어내고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으며, 작위를 행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의지하지 않고, (만물의) 으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들을 지배하거나 주재하지 않는다.*

도는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지만 소유하거나 주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위자연의 원리는 만물의 질서이자 인간 본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자 인성론은 인간이 도의 질서에 순응할 때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도(道)가 존중 받고 덕(德)이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도(道)가 만물을 낳아 기르되 간섭하지 않으며, 덕(德)이 만물을 양육하되 주재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움에 따르기 때문이다.**

도와 덕은 스스로 그러함 속에서 존귀하다. 자연은 한대에 이르러 도 행위의 원칙을 드러내는 무위 개념으로 이론화되었다. 도가 본받는 자연의 본질은 무위무불위(無爲無不爲)이며 도의 본연성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과 동일하다. 인성 또한 이 자연성에 근거하므로, 노자 인성론은 도의 본질을 인간 본성의 원리로 확장한 자연 인성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 『道德經』 제10장 “生之，畜之，生而不有，為而不恃，長而不宰”

** 『道德經』 제51장 “道之尊，德之貴，夫莫之命常自然。”

2) 무위의 적극적 해석: 실천의 의지로서의 자연성

노자의 ‘무위’는 단순한 소극적 비행위가 아니라, 인위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연의 질서에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주체적 실천 의지이다. 즉, 무위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본성에 맡겨 행함’ 또는 ‘저절로 하게 함’이다.

노자의 자연인성론은 규정적 사유 체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인간의 특성을 특정한 틀에 가두어 불변하는 보편성이라고 오인하고 인간을 한정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스스로 그러한’ 인성에서 인간 스스로 자연스러운 상태와 비자연스러운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나아가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상이하다면, 그 절대적 ‘보편성’을 탐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가 본고가 가진 도가 인성론에 대한 주요 문제의식이다.

노자의 인성론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언급하며 그에 상반되는 자연적 상태에 대해 서술하지만, 규정 행위 자체가 유위라는 인식 때문에 직접 규명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노자의 자연인성론을 선악 개념이 개입되는 무선무악이 아닌 초월적 인성론이라 정의할 수 있다.

『도덕경』은 인성의 자연성을 개별적 상대성보다는 만물이 도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 그러하도록 하는 보편적 자연성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은 개인마다 다른 성정이 아니라, 도의 자생적 질서에 따라 형성된 ‘스스로 그러한 성(性)’으로 파악된다. 노자의 인성론은 인성을 일정한 규범이나 가치로 한정하

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규정의 상대성과 한계를 자각하는 사유를 바탕으로 ‘비규정적 인성론’에 이른다. 여기서의 비규정(非規定)은 무규정(無規定), 규정의 부재가 아닌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인위적 분별의 소산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분별을 초월하려는 철학적 태도이다.

이러한 사유는 실천의 차원에서 무위의 원리로 구체화된다. 노자는 주관적 판단과 욕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지무욕의 경지를 제시하며, 차별과 대립을 넘어서는 부쟁(不爭) 정신으로 조화 실현을 모색한다. 이는 소극적 무위가 아니라 인간이 본성을 자각하고 인위적 구속을 벗어나 도의 질서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려는 의지적 실천 과정을 의미한다.

덕(德)을 품고 있는 사람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赤子]와 같아서, 독충이나 맹수, 흉포한 새가 해치지 못하며, 빠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워도 물건을 견고하게 쥔다.*

‘적자(赤子)’는 무위하고 순수한 존재의 상징이다. 그는 조화를 체현하며 도와 일체된 상태에 있다. 노자는 인간의 성(性)을 만물의 자연적 본성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무지무욕·허정무위의 자연성이 곧 노자의 인성론이 지향하는 본질이다. 요컨대, 노자 인성론은 인간이 도로부터 비롯된 자연적 존재임을 전제로, 상실된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강조한다. ‘무위’는

* 『道德經』 제55장 “含德之厚，比於赤子。蜂蟄虺蛇不螫，猛獸不據，攫鳥不搏。骨弱筋柔而握固。”

회복의 방법이며, ‘자연’은 회복의 상태이다. 노자의 자연인성론은 인간을 규정하려는 모든 유위적 관념을 해체하면서도, 완전한 비규정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규정 속의 실천적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의 본성을 자각하고 회복하려는 주체적 의지를 드러낸다.

노자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도라는 초월적 형이상학적 원리에 연결시키되, 그것을 실천 윤리로 전환한 사유 체계로서, 단순한 자연주의나 반문명론이 아니라 자연성의 회복을 통한 인간다움의 재정의라 할 수 있다.

2. 장자 인성론: 자유로의 내면적 초월

『장자』는 인성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지만, 자연관·사회관·성인관을 통해 본성에 관한 인식을 드러낸다. 장자의 인성론은 주로 외편과 잡편에서 전개되며, ‘진(眞)’, ‘정(情)’, ‘명(命)’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을 논한다.

그 성명(性命)의 정(情)에 맡긴다.*

형체는 인연에 맡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정은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 『莊子·駢拇』“任其性命之情”

** 『莊子·山木』“形莫若緣, 情莫若率.”

이러한 구절들은 인간 본성이 외적 규범이나 인위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자연적 정(情)에 따를 때 비로소 진성(眞性)이 실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진성은 장자의 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핵심 용어이다.『장자』에서 ‘성’과 관련된 의미에서는 ‘덕’ 뿐만 아니라 ‘진’이 강조된다.

참된 슬픔은 소리가 없어도 애통하고, 참된 노여움은 드러나지 않아도 위엄이 있으며, 참된 친함은 웃지 않아도 화목하다. 진실함이 내부에 있는 자는 신(神)이 외부로 움직이니 이 때문에 진(眞)을 귀하게 여긴다.*

‘진(眞)’은 내면의 진실함이 외부로 신적 감응을 일으키는 경지이다. 따라서 ‘진성(眞性)’은 인간의 내면에서 자생적으로 드러나는 순수한 본성으로, 어떠한 인위적 작위도 개입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뜻한다. 이로부터 ‘진인(眞人)’은 자연적 본성을 온전히 회복한 인간상으로 표현된다.

소와 말에게 네 발이 있는 것은 천(天)이라 일컫고, 말 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소 코를 꿰는 것은 인(人)이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로써 천을 멀하지 말며, 인위적인 일로써 천명을 멀하지 말며, 얻으려는 욕심으로 명예를 뒤쫓지 말라고 한다. 이를 삼가 지켜 잃지 않는 것을 참된 상태를 회복한다[反其眞]고 한다.**

* 『莊子·漁父』“眞悲無聲而哀，眞怒未發而威，眞親未笑而和，眞在內者，神動於外，是所以貴眞也。”

** 『莊子·秋水』“牛馬四足，是謂天；落馬首，穿牛鼻，是謂人。故曰：無以人滅天，無以故滅命，無以

장자는 인위적 조작이 본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진성 회복(反其眞)을 인간의 본연한 과제로 제시한다. 진성·진인·반기진의 사상적 연계는 인위적 작위를 초월한 ‘자연의 자기실현’에 있다. ‘진’은 스스로 그러함의 내재적 표현이며, 무목적성과 무위 상태에서 드러나는 진솔한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일부에서는 이 경지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분석하기도 하나, 『장자』에서 ‘진인’은 ‘진지(眞知)’를 갖춘 존재로 묘사되므로, 이는 인식의 부재 상태가 아닌 인위성을 초월한 통찰력을 의미한다.* ‘진지’는 진성이 회복된 자가 도와 일체가 되었을 때 발현되는 직관적 통찰이다. 이는 무의식이나 인식의 결여가 아니라, 인위적 판단을 초월한 내적 각성의 상태를 의미한다.

서복관(徐復觀)은 노자의 형이상학적 우주론적 관점에서 전개된 인성론이 내부로 수렴되어 장자 인성론을 형성하였다고 보는데,** 노장 사상의 계승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일반적인 관점이다. 노자와 마찬가지로 『장자』의 인성론 및 성명관(性命觀) 역시 자연 인성론이며, 도덕론을 근거로 제시한다.

진고응(陳鼓應)은 맹자와 비교하여 장자 인성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인성의 본원 특질로서 성선(性善)과 대비되는 성진(性眞)이며, 다른 하나는 인성 배후의 형이상학적 근거로서 맹자 학설이 명확한 형상적 근거가 있는 것과 달리, 장자

得殉名。謹守而勿失，是謂反其眞。”

* 『莊子·大宗師』 “진인이 있는 후에야 진지가 있다(有真人，而後有眞知).”

** 徐復觀，中國人性論史·先秦篇，北京 九州出版社，2014，422쪽.

인성론은 도덕 형이상학에서 연유한다는 점이다.*

고자는 사회 윤리적 가치 판단을 인간 본성에 부착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인성을 인의로 삼는 것은 버드나무를 술 잔으로 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장자 학파는 고자의 “타고난 것을 성(性)이라 한다”라는 주장을 계승하여 “성(性)은 생(生)의 바탕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고자와 장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모두 자연적 인간성론에 속한다.**

그는 고자가 인성에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자학파가 이를 자연인성론으로 계승했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무지무욕의 상태를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기에 생리적 본능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도가 사상을 지식의 확충에 따른 인식의 부정과 의식의 배제로 여기는 것은 일반적인이지만 불충분하다.

분명 도가는 ‘자연을 넘어선 인위적 태도나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지, 일체의 욕망을 부정하거나 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위적 욕망 때문에 자연성을 벗어나고, 그 집착으로 인해 ‘무(無)의 가치’ 및 ‘무위의 정신’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위의 근원이 되는 인위적 욕망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도가 심성론을 통해 곧 오히려 무위를 강조하여 자연성을 회복할 의지를 역설하는 것이 장자 인성론의 핵심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 陳鼓應, 莊子人性論, 北京 中華書局, 2017, 85쪽, 108쪽.

** 陳鼓應, 莊子人性論, 北京 中華書局, 2017, 86쪽.

1) 장자 자연관의 본체론적 의미와 인성론적 전개

노자의 자연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自己如此)과 자발적 활동을 의미하며, 장자는 이를 근본 원리로 간주하며 생명적 본체이자 우주적 법칙으로서 자기 존재의 자발적 생성 원리로 확장한다.

옛 진인(真人)은 삶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나아갈 때 기뻐하지 않고, 들어갈 때 거부하지 않으며, 흥가분하게 오고 흥가분하게 갈 뿐이다. … (삶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죽음을) 잊고 다시 되돌아간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써 도(道)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람으로써 천(天)을 돕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진인이라 부른다.*

진인은 생사와 득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적 분별로 천(天)을 손상시키지 않는 존재이다. 그는 자연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도와 일체된 자유의 상태에 있다. 장자는 만물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고 그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유위적 행위가 자연의 도에서 일탈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다투거나 사양하는 예(禮), 요(堯)와 절(桀)의 행위, 귀천(貴賤)은 때에 따라 달라지니 영원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莊子·大宗師』“古之真人，不知悅生，不知惡死。其出不訢，其入不距。翛然而往，翛然而來而已矣。…受而喜之，忘而復之。是之謂不以心捐道，不以人助天，是之謂真人。”

** 『莊子·秋水』“爭讓之禮，堯桀之行，貴賤有時，未可以為常也。”

장자는 예(禮), 귀천, 도덕적 구분 등 모든 사회적 차별을 인위적 산물로 보고, 자연의 평등한 질서를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곧 만물제동(萬物齊同)으로 귀결되며, 노자의 무위 자연 사상을 인간 정신의 차원으로 심화시킨다.*

장자에게 자연은 모든 존재가 귀속되는 내적 원리로서 자유의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사회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자아를 일치시키는 내면적 초월의 과정이다.

자연이 본질적 순수 그 자체라면 여기서 자유는 특정한 사유 및 인식 체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식을 포함한다. 심재(心齋), 좌망(坐忘), 보광(葆光) 등의 구체적 수양 방법을 통해 무아(無我)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이 곧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습한 곳에 자면 허리가 아파 한쪽이 마비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나무 위에서 살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이 셋 중 누가 바른 거처를 아는가?***

인간이 판단하는 ‘바름(正)’조차 상대적이며, 각 존재는 그 나름의 자연성을 지닌다. 장자가 말하는 평등은 차이의 부정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절대적 동등성이다. 따라서

* 『莊子·齊物論』 “만물은 본래 그러한 바가 있고, 본래 옳은 바가 있다. 그러하지 않은 만물이 없고, 옳지 않은 만물이 없다(物固有所然, 物固有所可. 無物不然, 無物不可).”

** 『莊子·齊物論』 “民濕寢則腰疾偏死, 鰐然乎哉? 木處則惴慄恟懼, 猨猴然乎哉? 三者孰知正處?”

자유란 모든 분별과 규정의 한계를 초월하여 본래의 ‘진(眞)’으로 돌아가는 실존적 해방을 의미한다.

태초에 무(無)가 있었고, 무는 이름이 없었다. 일(一)이 여기에 서 생겨났는데, 일이 있어도 형체가 없었다. 만물이 일을 얻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을 덕(德)이라 한다. … 형체가 신(神)을 보존하고 각각 규칙을 갖는 것을 성(性)이라 한다. 성을 수양하여 덕으로 돌아가고, 덕이 지극하면 처음과 같아진다.*

이 구절은 자연인성론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제시한다. 도(道)는 무(無)의 작용으로 드러나며, 덕(德)은 만물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의 작용이다. 성(性)은 신(神)을 보존하는 각자의 법칙으로 도의 구체적 표현이다. 진고응은 ‘무’를 우주의 시원으로 도의 무의지성, 무목적성, 무규정성을 나타내며, ‘일’은 그 전체성과 만물의 일체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성을 닦아 덕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수양을 통한 도의 회귀를 의미한다. 장자의 ‘덕’은 도덕적 규범이 아닌 존재론적 원리로 인간의 성 또한 만물의 일부로서 도의 질서에 속한다. 이 점에서 장자의 인성론은 자연인성론으로 규정될 수 있다.

* 『莊子·天地』“泰初有無，無有無名，一之所起，有一而未形。物得以生，謂之德 … 形體保神，各有儀則，謂之性。性修反德，德至同於初。”

** 陳鼓應，莊子人性論，北京 中華書局，2017，88쪽.

2) 도가 인성론의 한계와 심성론 연구의 필요성

장자의 자연인성론은 만물을 생명 존재 자체로서 동등하게 바라보며, 어떠한 가치 판단이나 사유 체계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스스로 그러함(自然)’이 지닌 절대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성의 본래적 순수성과 절대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노자의 인성론보다 한층 심화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

장자에게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그 본성은 특정한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 판단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자연 인성론은 현실적 윤리 문제에 적용될 때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인간의 본연한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유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둘째, 인간의 자연적 욕망이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단순히 자연의 흐름으로 방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규범의 공백이 드러난다. 이때 장자가 비판한 대상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과 인위적 통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는 노장 인성론이 궁극적으로 심성론으로 나아가야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적 행위의 원리만이 아니라, 심과 성, 즉 의식과 본성의 통합적 구조를 탐구해야 한다. 심성은 정신 활동의 근원이자, 인간이 도와 합일할 수 있는 내적 매개이기 때문이다.*

* 『道德經』 제49장, “성인은 정해진 마음 없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聖人無常心, 以百姓心為心.)”; 『莊子·人間世』 “도는 오직 마음을 비우는 곳에 응집된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

따라서 장자 인성론은 자연인성론의 완결점이자 동시에 심성론으로의 사유적 전환을 예고하는 경계에 위치한다. 그의 사상은 인간이 도의 질서 속에서 내면적 자유를 자각하고, 진성의 회복을 통해 궁극적 초월을 실현하는 길을 제시한다.

Ⅳ. 도가 인성론의 본질: 자연 본성과 무위 심성

■ 도가 인성론은 윤리학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에서 전개한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로서 만물과 동일한 존재론적 위상을 지니며 도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자연적 존재로 이해된다. “반박귀진(反朴歸真)”으로 요약되는 노자의 사상은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려는 요청이다. 이는 인간이 자기 안의 심적 구조를 통해 자연의 도와 합일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장자는 이를 진(眞)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자연 그 자체의 진정성을 인간 존재의 이상으로 제시한다. ‘진성’은 도와 합일한 상태로서의 자발적 무위이며, 심성의 본질적 구현이다.

노자가 무위의 원리를 통해 인간과 우주의 질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정치적 통치 이념으로 확장하였다면, 장자는 그 초점을 내면의 정신적 수양과 심적 통합의 차원으로 옮겨 도와의 합일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전개는 도가 인성론이 성격이나 행위의 원인 분석을 넘어, 우주·인간·심성의 통합적 원리를

을 재계하는 것이다(唯道集虛, 虛者心齋也.)”

탐구하는 존재론적 논의임을 보여준다.

인간 본성은 도의 작용에 의해 주어진 자연성의 한 양상으로 특정 기준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가 인성론은 도에 순응하는 상태, 곧 무위의 상태를 인간 본성의 이상적 실현으로 본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자연스러움’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는 존재론적 탐구로서의 고유성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상태를 ‘자연적 본성’으로 고정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인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자연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하는 생명적 다양성의 원리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도가 인성론은 인간의 근원적 성질로서의 자연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 과제와 마주한다.

기존 연구는 도가 인성론을 주로 우주론적 차원에서 해석해 왔으나, 인간의 심적 구조나 의식의 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가 인성론은 필연적으로 심성론으로의 심화가 요청된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주어진 상태로서의 ‘성’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주체로서의 ‘심’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심성론은 도가 인성론이 내면적 주체성의 차원으로 발전하는 이론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노자의 “도법자연”은 도가 인성론의 핵심 명제이다. 도는 자연을 본받고, 자연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 또한 도의 질서에 조응하는 한 자연적이며, 인위적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난다. 장자 역시 ‘진(眞)’의 개념을 통해 순수한 본성을 인성의 본질로 제시하며, ‘진성’을 무위자연의

원리와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한다.

도가의 인성론을 자연인성론으로 규정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자연성을 생리적 본능이나 욕망의 충족으로 이해하는 해석이다. 이는 인성과 물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인간의 행위를 본능적 반응으로 환원시킨다. 둘째, 무위를 의지의 결여나 행위의 부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무위는 무행위나 무의식이 아니라, 인위적 욕망과 집착을 절제하여 도의 질서와 합치하려는 주체적 실천의 태도이다.

즉, 도가의 무위는 행위를 부정하는 비행위가 아니라 자연 법칙에 조응하는 자발적 비행위이며, 이는 인간의 사유와 감정, 욕망을 도의 질서에 따라 조화시키는 심리적 조율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가 인성론의 자연성은 생리적 충동이 아니라, 도의 본체적 질서 속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내재적 자연성이다.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심’ 개념이 도입된다. 이는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서 감정, 인식, 도덕 판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이며, 도가 인성론이 무위한 자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내면적 심성의 질서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도가의 인성론은 심성론적 관점에서 재해석될 때 비로소 그 철학적 체계가 완결된다. 인간의 본성은 도의 질서를 내면화한 심성의 구조 속에서 자생적으로 드러나는 존재 방식이다. 도가 인성론의 핵심은 자연성과 무위에 있으며, 이는 외부 질서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태도가 아닌 도의 질서를 자발적으로 실현하는 적극적 실천을 뜻한다. 다시 말해, 도가 인성론은 ‘자연에 합일하려는 심의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무위의 심

성’이라 요약된다. 따라서 도가 인성론은 도덕규범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규범윤리적 논의가 아닌 인성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내면적 사유 체계이다.

V. 결론

■ 본 연구는 노장 사상에 내재된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그 핵심 구조인 심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가 인성론은 노자 사상의 ‘도’, ‘자연’, ‘무위’를 중심 개념으로 전개되며, 장자로 계승되면서 인간 내면의 심리적·정신적 차원을 포괄하는 심성론으로 이론적 심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도가 인성론이 윤리학적 담론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과 내면의 작용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사유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성론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해명하려는 철학의 기본 전제로 간주되어 왔다. 도가의 경우 유가의 도덕철학적 체계와 달리 존재론적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성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의 근거가 아니라, 인간이 도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는 존재론적 물음의 형태로 제시된다. 따라서 도가 인성론의 존재 여부는 개념의 명시적 표출이 아니라 사유의 내적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곧 ‘윤리적 성론(性論)’이 아니라 ‘존재론적 인성론’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성론은 인성론의 단순한 하위 범주가 아니라 그것의 내면적 심화이자 사유적 완결의 단계에 해당

한다. 심(心)은 인간의 의식과 정신 활동의 중심으로서 도의 질서가 인간 내면에 구현되는 매개적 작용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인성이 외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을 드러낸다면, 심성은 그 본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구조이자 근원적 동력이다. 도가 사상에서의 인성은 선악의 규범적 평가를 초월한 자연적 존재이며, 그 자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기제가 곧 심이다.

결국, 도가 사상에서 인성과 심성은 선후나 인과로 구분되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내재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컨대, 도가 심성론의 본질은 도의 자연적 질서와 합일하는 자발적 내면성에 있다. 이러한 심성은 단순한 욕망의 부정이 아니라, 도의 창조적 리듬을 인간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실현하는 존재의 근원적 주체성이다. 따라서 도가 인성론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자연인성론에 기초하며, 이를 내면화한 심성론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본성을 해명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가 사상에 인성론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재검토하였다. 노장 사상에서 ‘성(性)’이라는 명시적 용어가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과 그 내면적 작용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확인된다. 이는 윤리적 성론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을 도의 질서 속에서 이해하려는 근원적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가의 인성 이해는 인간의 자연 본성을 내면의 심성 구조 속에서 자생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관점은 인성론을 심성론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철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 ◆ 『道德經』, 『莊子』, 『左典』, 『詩經』, 『孟子』
- ◆ 임채우, 「노자 심성론에 있어서 앎과 욕망의 구조와 문제: 유가의 윤리적 심성론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동서철학연구』, 14.1 (1997), 219~231쪽.
- ◆ 윤지원, 「『莊子』에 나타난 마음(心)과 몸(身)에 대한 고찰」, 『중국학연구』, 60 (2012), 189~210쪽.
- ◆ 鄭開, 「自然與Physis: 比較哲學的視野」, 『人文雜誌』, 08 (2019), 2~8쪽.
- ◆ 鄭開, 「道家心性論研究」, 『哲學研究』, 08 (2003), 80~86쪽.
- ◆ 鄭開, 『莊子哲學研究』, 廣西 人民出版社, 2016.
- ◆ 陳鼓應, 『莊子人性論』, 北京 中華書局, 2017.
- ◆ 徐復觀, 『中國人性論史·先秦篇』, 北京 九州出版社, 2014.



■ 인성과 심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 범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가 사상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도가 경전에서 ‘성(性)’ 개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심’ 또한 유가와는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도가에는 체계적인 인성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재검토하고, 무위와 자연의 사유를 통해 인간 본성의 내면적 구조를 조명하였다.

도가 인성론은 인간을 선악의 규범적 한계를 초월하여, 도의 자생적 원리 속에서 존재의 본래적 상태로 회복하려는 사유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기제가 곧 ‘심(心)’이다. 심은 인간의 의식과 정신 활동의 중심으로서 도의 원리가 인간 내면에 구현되는 매개적 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심성은 인간 본성이 발현되는 내적 구조이자 그 생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동력으로 파악된다. 이 관점에서 심성론은 인성론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그 내면적 심화이자 사유적 완결의 단계에 해당한다. 결국 도가 인성론은 인간의 본성을 도적 자연성의 자생적 원리 속에서 이해하며, 그 실현의 차원에서 ‘심’의 작용을 핵심적 사유의 축으로 제시한다.



The Ontological Structure of the Daoist View of Human Nature and the Necessity of the Mind Nature Theory

No, Dan Kyung

(Peking University of China · Chinese Philosophy · PhD)

■ This study reexamines the prevailing assumption that Daoism lacks a coherent discourse on human nature. While the term nature (性) seldom appears in Daoist texts and the notion of mind (心) diverges from its Confucian moral connotations, the DaoDejing and Zhuangzi nonetheless articulate a distinctive view of human nature grounded in spontaneity (自然) and Wuwei (無爲). The Daoist thought conceives human beings as self-generating entities, restoring their original state within the immanent order of the Dao. The mind functions as the mediating field through which the Dao is internally realized, serving as both the center of consciousness and the dynamic

source of authentic naturalness. In this sense, the Daoist view of mind nature is not a subsidiary of the theory of human nature, but is its inner deepening and philosophical culmination, revealing a unified structure of mind nature that integrates consciousness, nature, and Dao.

Keywords: Daoism, Human Nature, Mind and Nature, Nature, Wuwei, Will